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

어 윤 경¹⁾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학습경험에서 출발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희망하는 직업목표에 대한 직업흥미 수준이 향상되고 이것이 개인의 수행 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성취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향상되기를 원하는 성취수준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직업흥미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생(255명)이었고, Amos2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로분석하였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한 흥미발달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 RMSEA, NFI, TLI, IFI, CFI 적합도 지수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진로미결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흥미, 결과기대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틀을 기초로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직업흥미를 모두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 진로미결정, 경로분석

1) 제1저자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mail: ayk8892@kongju.ac.kr)

I. 서 론

현대의 직업세계는 직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Wenxia et al., 2016; Arthur, 1994; Arthur & Rousseau, 1996) 진로계획을 세우고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혼란스러움을 많이 경험한다. 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경력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경력전환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 적절한 심리적 강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Morrison & Hall, 2002; Savickas, 1997).

지금까지 진로미결정은 직업심리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이었다(Osipow, 1999; Tirza et al., 2015). 특히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대학생들이나 경력을 전환하려는 개인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진로의사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진로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Tirza et al., 2015; Lipshits-Braziler, Gati, & Tatar, 2015).

진로의사결정 상태는 취업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향후 행복한 직업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측인자이다(어윤경, 2018 재인용). 진로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직무만족이나 직무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직무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학생 시기

에 진로미결정 상태가 지속되면 학업문제를 동반하거나(Lucas, 1993, 김미영 외, 2015 재인용), 무력감, 자기 확신의 감소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unders et al., 2000, 김미영 외, 2015 재인용).

초기에 진로의사결정 연구는 진로를 결정할 상태인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분법적 구분은 복잡한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진로의사결정 연구들은 의사결정 여부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Gati et al., 2010; Tirza et al., 2015).

이후 진로의사결정 연구는 의사결정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에 따라 유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Harren, 1979).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진로의사결정 상태를 분류하고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기술하는 데 그쳤을 뿐 진로의사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진로의사결정 양식이 개인차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에 불충분하다(Shiloh, Salton, & Sharabi, 2002).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Sampson과 동료들(1992)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은 일종의 인지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현재의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 간 괴리를 인지하고 이를 좁힐 수 있는 효과적인 인지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진로미결정’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을 세분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Lihui et al., 2018,

어윤경 2018 재인용). 또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Gati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선행요인이 되어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와 수행목표를 통해 결과변인인 성취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Lent, Brown과 Hackett(1994)은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 학습경험, 사회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김민선(2008)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흥미모형, 선택모형, 그리고 수행모형 등을 제시하였는데, 진로발달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흥미발달모형에서는 직업흥미가 높아지면 수행행동의 동인이 되기 때문에 진로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수행모형에서는 학습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통한 개인의 직업적·학업적 수행의 성취수준과 행동을 지속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행과 성취수준은 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김영혜, 안현의, 2012). 과거 수행이 미래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기대가 스스로 결정한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 목표가 수행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황매향,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학습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개인의 직업흥미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정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재되고 있다(Wenxia et al., 2016).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제시하는 변인들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서 높은 수준의 진로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개입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 변인이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미결정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인지이론을 통해서 이들 변인들이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데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 개관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와 사회인지진로이론

최근 많은 연구들이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이하: SCCT)을 적용하고 있다(Lent et al., 2018; Erkan, 2013).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접근법 중 하나이다. 이것은 특성요인 이론과는 달리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Lent, Brown과 Hackett (1994)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직업흥미를 통해 수행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경험에 대한 이론이다(Lent & Brown, 2008, Lent, Brown, & Hackett, 1994). 여기서 자기효능감이란 인생 전반에 걸쳐 ‘직업 준비, 진입, 조정, 변경에 필요한 특정 업무를 관리하는 능력’에 관한 신념을 말하며(Lent & Brown, 2013, p561) 사회인지진로(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모델에서 언급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DMSE)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진로목표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 김태석(2012)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며,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자신의 진로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공, 학문, 직업 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등의 영역에서도 결정적인 예측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Esters & Retallick, 2013, 윤정혜, 2015 재인용).

많은 연구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Neck & Houghton, 2006; 김명옥 박영숙, 2012; 김태석,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Neck & Houghton, 2006)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요인과 취업 스트레스 같은 부정 정서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그것이다(김명옥 박영숙, 2012). 또한 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 성숙 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김태석, 2012; Duffy, Dik, & Steger, 2011). 이와 같은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과 관련된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과기대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Bandura, 1997). Lent와 동료들(2017)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모두 진로탐색 행동을 예측했으며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 결정수준을 예측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적 결과기대는 선택한 직업과 관련한 학습경험이나 진로탐색 행동을 했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Betz, Klein, & Taylor, 1996; Erkan,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모형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업흥미가 형성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는 다시 직업흥미와 함께 진로선택 및 행동실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정석, 2017).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격 특성, 재능, 사회적 지원 및 장벽을 포함한다.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정서적 특성이 행동 수행을 촉진 혹은 억제하거나 정서적 대처 경향을 유발함으로써 진로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Lent & Brown, 2013, p563). 예를 들어, 특정한 긍정적 성격특성이나 행동특성이 높은 개인은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신경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사결정시 불안이나 우유부단함을 느낄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멘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진로정보에 대한 노출 여부, 개인의 학습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ent et al., 20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를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목표수립과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Lent et al., 2018). 예를 들어 진로탐색 및 의사결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자신감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있다.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결과기대 모두 행동에 참여하도록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목표수립과 대응행동을 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진로의사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Ireland와 Lent(2018)는 일반적으로 성격, 사회적 요인 및 경험 변수를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그리고 탐구적인 목표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설정하였고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했다(Bandura, 1997; Lent et al., 2018). 따라서 SCCT를 활용함으로써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구하여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구직, 직업전환 과정에서 적절한 직업행동을 하도록 변수들 사이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Sheu & Lent, 2015).

2. 학습경험, 직업흥미와 진로미결정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Bandura(1997)의 사회학습이론을 확장하여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가 높아지면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진로탐색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진로의사결정 어려움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Lent et al., 2018). 이때 학습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데,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목표와 관련된 학습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ent et al., 2018).

대학교의 전공은 진로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선택한 진로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박명지, 2008). 또 본인의 전공과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목표가 일치할수록 흥미가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진로준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

므로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 전공은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어윤경, 2010) 대학교 시기에 전공에 대한 학습 경험은 이후 직업생활에 매우 중요하며, 전공과 진출분야의 특성이 일치할수록 자신이 수립한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이 생기게 되어 진로미결정 수준이 감소된다.

한편 개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분야와 대학의 전공이 일치하는 것은 대학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해당 전공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전공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명지, 2008)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이상과 미래 직업에 대한 기준에 일치한다면 전공 만족이 높아지는데, 개인이 그 직업에 대해 갖는 기대와 직업 준거집단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전공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중 학기수가 많을수록 전공에 대한 학습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은 본인의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학습경험을 축적하였음을 가정하고 있다. Lent와 그의 동료들(1994)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과거의 학습경험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근원으로 들고 있다.

직업심리학 영역에서 진로미결정은 가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주제이다(Osipow, 1999;

Tirza et al., 2015). 처음에는 진로를 결정했는가 여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후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점이 대두되면서 진로의사결정 유형(typology)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으로 분류하는(Harren, 1979) 진로의사결정 스타일 연구(typology)가 그것이다(Harren, 1979; Sagiv, 1999).

그러나 이후 typology 연구가 진로상담 과정에서 개인이 진로의사결정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진로의사결정을 연속선상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한복남(2004, 이연희, 2016 재인용)은 진로의사 결정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부족, 진로선택 과정에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한 진로선택 지연, 내·외적 갈등 등으로 아직 진로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진로의사결정을 연속선상 과정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개인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장애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진로미결정요인(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에도 동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Tirza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진로미결정 변인을 통해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으면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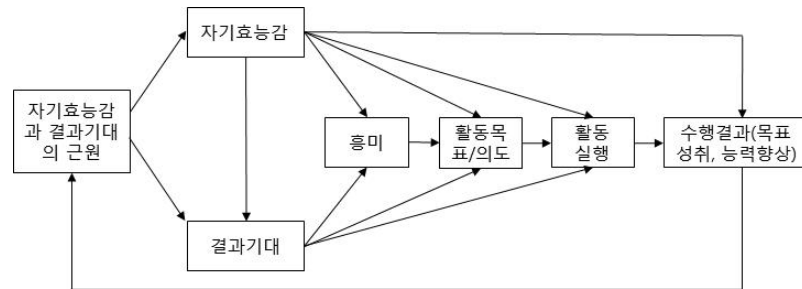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인지진로이론 흥미발달 모형(Lent, Brown, & Hackett, 1994)

것으로 간주하고 이 상태를 높은 성취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사회진로인지이론을 적용하여 학습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거쳐 직업흥미를 발달시키고 결과적으로 진로미결정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하여 진로상담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Lent와 그의 동료들(1994)이 주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 흥미발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였다. 연구대상 학년은 1~4학년이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 교육계열 등 다양한 계열이 포함되었다. 학기가 시작된 후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년 및 전공별 연구대상 인원은 표 1과 같다.

2. 측정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Gati와 Levin(2012)이 개발한 진로결정 능력(Career Decision-Making Adaptability) 검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Gati와 Levin(2012)의 연구에서 검사 문항의 Cronbach α 는 .81이었으며 총 1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기대는 진로의사결정 프로파일(Gati et al., 2010)안에 존재하는 이상적 직업기대에 대한 문항을 희망하는 직업을 달성할 수 있을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시작 전에 소속기관의 윤리심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 받았으며, 남녀 대학생에 대하여(255명) 대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

표 1. 학년 및 전공별 연구대상 인원					(명, %)
전공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	교육계열(유·초등)	총계
	115(45.10)	95(37.25)	20(7.84)	25(9.80))	255(100)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이상
	42(16.47)	113(44.31)	70(27.45)	23(9.02)	7(2.75)
					255(100)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수정·보완하여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의 선택을 만족시킬 직업을 찾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모든 포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진로결정 능력 검사와 결과기대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모두 7점 Likert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완전히 동의함)로 응답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높은 것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

에서 Cronbach α 는 .83이었다(표 2).

진로미결정수준 측정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Gati와 동료들(1996)이 개발한 진로미결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Questionnaire; CDDQ) 총 44문항을 사용하였다. CDDQ는 성격적요인, 정보부족, 비일관적 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묻고 있으며, Kleiman과 Gati(2004)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는데 Kleiman과 Gati(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71이었다. 응답시 Likert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표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항내용 및 신뢰도

문항내용 및 문항수	측정내용	Cronbach α
정보수집(3)	직업정보나 진로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수집하는가를 측정함	.83
의사결정자신감(3)	진로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정도를 측정함*	
진로목표설정(3)	진로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측정함	
진로계획(3)	진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함*	
문제해결방법(3)	진로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함*	

* 역채점

표 3. CDDQ 하위요인별 문항내용 및 신뢰도

문항내용 및 문항수	측정내용	Cronbach α
준비부족요인(10)	의지가 부족한 성격적 특성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일컬음.	.68
정보부족요인(17)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직업정보부족, 직업에 대한 전망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일컬음.	.96
비일관적 정보요인(17)	직업정보에 신뢰할 수 없거나, 주변인의 기대나 자신의 가치관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 자기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일컬음.	.89

= 완전히 동의함)로 응답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68~.96이었다(표 3).

학습경험과 직업흥미 측정

Lent와 동료들(1994)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과거의 학습경험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근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중 학기수가 많을수록 전공에 대한 학습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은 본인의 전공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학습경험을 축적하였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현재 대학 등록학기(휴학중인 경우 직전 등록학기 기재 요망)’를 설문조사하여 학습경험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직업흥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장래 희망하는 직업들을 생각나는 대로 응답표에 나열하고, 이 직업들 가운데 진출하기로 결정한 직업에 대해 CSI(The career state inventory) 척도(Stephen et al., 2018) 문항을 활용하여 ‘본인이 생각한 장래 희망 직업이 전반적으로 본인의 흥미를 어느정도 만족시켰는가?’와 ‘이 직업을 수행하기에 본인이 어느정도 유능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

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두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직업에 대하여 직업흥미가 높은 것으로 산출하였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PC⁺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수립한 연구모형에 대하여 변수간 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path analysis)은 상관계수로 주어지는 양적인 정보를 기초로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변수간의 공분산이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다(김석우 외, 2016).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관련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변수 간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잠재변인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것 보다 경로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한 발달 모형은 그림 2와 같고, 이에 대한 모형 적합도는 AMO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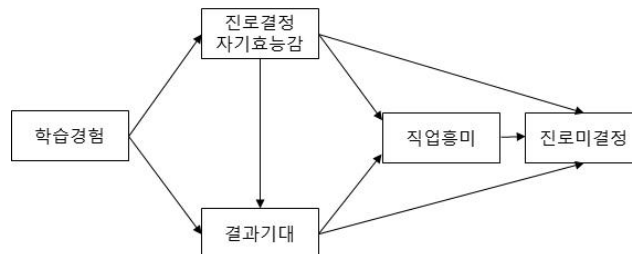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인지진로이론 연구모형

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와 절대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가 있는데(김석우 외, 2016)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NFI, TLI, IF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직업흥미 변인을 탐색하였으며,

이 변인들이 진로미결정 수준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직업흥미 변인 및 진로미결정 변인 각각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진로미결정 요인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흥미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표 4. 각 하위요인별 상관 및 평균(표준편차)

	1) 학습 경험	2) 결과 기대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 진로미결정 전체	5) 직업 흥미	6) 준비 부족	7) 정보 부족	8) 비일관 정보
1)	1							
2)	-.002	1						
3)	.142*	.123*	1					
4)	-.153*	-.258**	-.577**	1				
5)	0.119	.319**	.270**	-.397**	1			
6)	-.189**	.176**	-.437**	.590**	-0.096	1		
7)	-0.110	-.320**	-.507**	.935**	-.381**	.417**	1	
8)	-0.111	-.302**	-.495**	.887**	-.421**	.335**	.739**	1
M	13.36	13.93	131.71	135.83	8.25	35.29	52.71	47.62
SD	9.87	4.46	14.41	36.91	1.47	8.29	19.58	15.35
Min	0	3	89	44	3	10	17	17
Max	60	21	171	248	10	57	104	102
왜도	0.78	-0.44	-0.11	0.02	-0.60	-0.32	0.10	0.09
첨도	1.31	-0.61	-0.17	-0.31	-0.13	0.12	-0.62	-0.1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다중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수	β	표준오차	t	설명량(R^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264	.131	-9.632***	.411
결과기대	-1.072	.428	-2.502*	
직업흥미	-5.447	1.336	-4.076***	
학습경험	-.120	.182	-.660	

관련변인인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가 진로미결정 감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설명량(R^2)을 살펴보면, 41.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표는 표 6과 같다.

3.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미결정의 구조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직업흥미와 진로미결정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사회인지진로발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은 위에 제시한 표 4와 같고 모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분석결과, $\chi^2=3.753(df=2, p > .05)$, RMSEA=.056, CFI=.990, TLI=.926, NFI=.981, IFI=.911로 적합도 지수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RMSEA, NNFI(TLI), IFI, CFI는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모형은 양호하였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하였을 때 대학생의 경우 효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 경로모형은 그림 3과 같다.

4. 진로미결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로계수는 .1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126, 학습경험 →결과기대 -.02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흥미 .239, 결과기대 →직업흥미 .29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

표 7.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NFI	CFI	TLI	IFI	RMSEA
흥미발달모형	3.753 (df=2, p=.153)	.981	.990	.926	.911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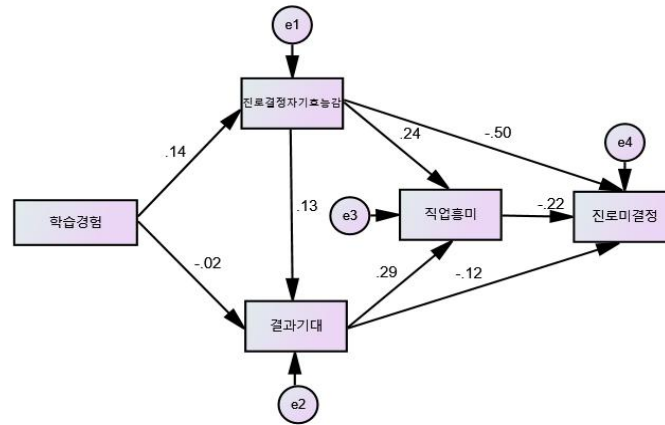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모형

결정 $-.499$, 결과기대 $\rightarrow$ 진로미결정 $-.122$, 직업
 흥미 $\rightarrow$ 진로미결정 $-.224$ 였다. 학습경험 $\rightarrow$ 결
 과기대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

로 구성되므로 학습경험 $\rightarrow$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총효과는 $.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ightarrow$ 결과
 기대 총효과는 $.13$, 학습경험 $\rightarrow$ 결과기대 총효
 과는 $.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ightarrow$ 직업흥미 총
 효과는 $.29$, 결과기대 $\rightarrow$ 진로미결정 총효과는

표 8.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의 효과

	경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접효과	-	.13	.24	-.50
	간접효과	-	-	.04	-.08
	총효과	-	.13	.28	-.58
결과기대	직접효과	-	-	.29	-.12
	간접효과	-	-	-	-.06
	총효과	-	-	.29	-.18
직업흥미	직접효과	-	-	-	-.22
	간접효과	-	-	-	-
	총효과	-	-	-	-.22
학습경험	직접효과	.14	-.02	-	-
	간접효과	-	.02	.02	-.08
	총효과	.14	.00	.02	-.08

-.18, 직업흥미 → 진로미결정 총효과는 -.22, 학습경험 → 직업흥미 총효과는 .02, 학습경험 → 진로미결정 총효과는 -.08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효과계수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결과, 진로미결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58), 직업흥미(-.22), 결과기대(-.18), 학습경험(-.0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성취수준을 높인다는 개념인데 본 연구결과 학습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대학의 전공 학습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흥미를 높이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한 흥미발달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진로의사결정시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변인을 찾고, 효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초하여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을 확장하여 Lent와 동료들이(1994) 제안

한 이론으로서 학습경험이 자아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직업흥미를 발달시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 수준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듯이 직업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학습경험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개인의 직업흥미를 발달시키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진로미결정 연구가 직업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Tirza et al., 2015) 관련 변인들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에(Harren, 1979; Sagiv, 1999) 여러 변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쳐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게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학습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직업흥미를 발달시켜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소시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시기에 본인의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전공과 관련된 진로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련 전공과목을 수강한다거나 기타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학습경험에 대하여 재학시기 등록한 학기수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본인 전공에 대해 만족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하혜숙(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고 본인의 전공과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목표가 일치할수록 쉽게 흥미가 생겨서 진로탐색 행동을 하게 되고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어윤경, 2010)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경험에서 출발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거쳐 직업흥미를 발달시키고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모형을 고려할 때 학습경험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 진로미결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초로 한 흥미발달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진로미결정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χ^2 는 3.753(df=2, $p > .05$), RMSEA는 .056, CFI는 .990, TLI는 .926, NFI는 .981, IFI는 .911로 적합도 지수가 산출되었다. 즉, 학습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직업흥미 발달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다만 학습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결과기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학습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미래 진로설계 과정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때에 미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이 학습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만족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하혜숙 2000)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로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대학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분야와 관련된 학습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미결정은 학업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Lucas, 1993; Guan et al., 2015) 의사결정 기술 향상을 위해 전공학습과 관련한 인지적 개입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습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흥미를 높이고 결국 진로의사결정 수준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RMSEA, NFI, TLI, CFI, IFI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목표수립과 행동을 촉진시킨다(Lent et al., 2018)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대학의 전공 학습은 직업흥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의 전공수업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흥미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직업흥미가 높으면 진로미결정수준이 감소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직업적 결과기대는 직업선택과 결정에 유용한 학습경험을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Erkan, 2013)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목표수립과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Lent et al., 2018)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통해서 이들 변인들이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학습경험이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성취수준을 높인다는 개념인데 본 연구결과 학습경험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경험은 직업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흥미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출발이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이라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경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총효과는 .1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총효과는 .13, 학습경험 →결과기대 총효과는 .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흥미 총효과는 .29, 결과기대 →진로결정 총효과는 -.18, 직업흥미 →진로결정 총효과는 -.22, 학습경험 →직업흥미 총효과는 .02, 학습경험 →진로결정 총효과는 -.08이다. 여기서 진로결정 감소에 미치는 총효과가 큰 변인 순서대로 나열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흥미, 결과기대, 학습경험 순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금까지 진로의사결정 연구는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 방식은 지배적인 특성에 편향되어 상대적으로 덜 지배적인 것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었다(Tirza et al., 2015). 또 개인은 한 장면에서 활용하는 패턴이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어윤경, 2018). 따라서 최근에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데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행복한 직업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이론적 틀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로분석의 장점은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석우 외, 2016). 본 연구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출발이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이므로 경로분석을 통해 자아효능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직업흥미를 향상시키면 효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경험을 재학기간 등록 학기수가 많을수록 학습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산출하였는데, 이것은 전공에 어느정도 만족할 때 관련 분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연구대상자가 이수한 전공 학기수 외에 희망직업 분야와 관련하여 경험한 학습 내용을 모두 학습경험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오류를 고려한 잠재변인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직업흥미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

었다. 이 때 직업흥미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희망 직업에 대한 본인의 흥미와 유능감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물었으나 향후에는 직업흥미검사를 통해 흥미분화도를 측정하여 모형을 검증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직업흥미 분화정도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유용한 진로상담 개입방법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미영, 이재신, 이지혜 (2015).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3(2), 1-19.
- 김민선 (2008). 공과대학 학생들의 공학흥미와 사회인지적 변인들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석우, 박상욱, 구경호 (2016). 인과모형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대학생 연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정석 (2017).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사회인지진로이론 통합모형 검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김태석 (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박명지 (2008).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가 진로성숙도 및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어윤경 (2018). 다차원적 진로의사결정과정과정과 진로미결정 관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비교. *교육학연구*, 26(4).
- 어윤경 (2010). 직무 만족도 변화 추이, *상담학연구*, 11(2), 771-738.
- 이연희 (2016).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잠재적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의 진로미결정수준과 학교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정혜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2), 29-46.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황매향. (2007). 사례로 배우는 진로 및 직업상담. 서울: 학지사.
- Arthur, M. B. (1994).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perspective for organizational inquir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 295-306.
- Arthur, M. B., & Rousseau, D. M. (1996).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General Information*, 43, 732-73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 control. New York, NY: Freeman.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 (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 Erkan I. (2013).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the Predictors of Vocational Outcome Expectation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3(3), 1426-1430.
-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 277-291.
- Gati, I., & Levin, N. (2012). The stability and structure of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one-year follow-up.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4), 390-403.
- Kleiman, T., Gati, I., Peterson, G., Sampson, J., Reardon, R., & Lenz, J. (2004). Dysfunctional thinking and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312-331.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Ireland, G. W., & Lent, R. W. (2018).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s: A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37-47.
- Kleiman, T., Gati, I., Peterson, G., Sampson, J., Reardon, R., & Lenz, J. (2004). Dysfunctional thinking and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312-331.
- Lent, R. W., & Brown, S.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6-2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Morris, T. R., Penn, L. T., & Ireland, G. W. (2018). Social – Cognitive Predictors of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ongitudinal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 557-568.
- Lent, R. W., Ireland, G. W., Penn, L. T., Morris, T. R., & Sappington, R. (2017). Sources of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for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 self-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9, 107-117.
- Lent, R. W., & Brown, S. D. (2006).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cognitive constructs in career research: A measurement guid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12-35.
- Lipshits-Braziler, Y., Gati, I., & Tatar, M. (2016). Strategies for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1) 42-66.
- Lihui Y., Liu L., Hongyan L., Tianlong H., And Yueran W., & Zhenhu H.,(2018). Nationality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nd Career Self-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6(3), 471-484
- Lent, R. W., Sheu, H. B., Miller, M. J., Cusick, M. E., Penn, L. T., & Truong, N. N. (2018). Predictors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choice options: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of the social-cognitive choice model by gender and race/ethn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 17-35.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51.
- Morrison, R., & Hall, D. (2002). Career adaptability. In D. T. Hall (Ed.), *Careers in and out of organizations*. Thousand Oaks: Sage.
-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Sampson, J. P.,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67-74.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hiloh, S., Salton, E., & Sharabi, D.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rational and intuitive thinking styles as predictors of heuristic responses and framing eff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415-429.
- Sagiv, L. (1999). Searching for tools versus asking for answers: A taxonomy of counselee behavioral styles during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7, 19-34.
- Sheu, H., & Lent, R. W. (2015).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on career intervention. In P. J. Hartung, M. L. Savickas, & W. B. Walsh (Eds.), *APA handbook of career intervention: Foundations* (Vol. 1, pp. 115-128).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 Reardon, R. C. (2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r thinking to car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298.
- Stephen L., Gary P., & Robert R. (2018) The career state inventory(CSI) as international

- assessment by Stephen Leierer, Gary Peterson, and Robert Reardon. *Career Development Network Journal*, 9-21.
 - Tian, L., Guan, Y., Chen, S. X., Levin, N., Cai, Z., Chen, P., et al. (2014). Predictive validity of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over time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1(4), 282-300.
 - Tirza W., Itamar G., & Yanjun G. (2015).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 cross-cultural comparison among US, Israeli, and Chinese samp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143-153.
 - Wenxia Z., Yanjun G., Lu X., Miranda C. K. M., & Yufan D. (2016). Career success criteria and locus of control as indicators of adaptive readiness in the career adaptation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24-130.
- 1 차원고접수 : 2019.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9. 12. 07.
최종게재결정 : 2019. 12. 17.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Career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Interest and Career Decision-Making Based on SCCT

Au, Yunkyu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are studied actively. In relation to this,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is useful for explaining career decision-making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variables that reduce the difficulty of career decision-making by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a path for these individuals by which they can make career decisions effectively.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relevant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asis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in Korea ($n = 255$).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have learning, career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and interest affec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career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interest and career decision-making based on SCCT? Third, how do the variables reduc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daptability (CDA) an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y Questionnaires (CDDQ) were used. The path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indices (RMSEA, TLI, NFI, CFI, IFI) were good; $\chi^2=3.753$ ($df=2$, $p > .05$), RMSEA=.056, CFI=.990, TLI=.926, NFI, =.981, and IFI=.911.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CCT is useful to explai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college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effective consulting plans for career decision-making will be devised, based on learning experience, career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and interest. This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areer decision-making.

Keywords: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interest, path analysis